



KOCHAM ECONOMIC NEWS

제 2012-50 호



2012년 7월 31일(화)

미국 경제 동향

- 1) 6월중 개인소비지수 전월비 불변 기록
- 2) 5월중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하락폭 감소

해외 경제 동향

- 1) 유로존 실업률 사상최고 경신
- 2) 리보금리 조작 은행원들, 최대 징역 10년형 예상

산업·시장 동향

- 1) 미국,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예비 부과
- 2) 삼성-애플간 미국내 특허소송 본안 심리 시작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6월중 개인소비지수 전월비 불변 기록

- 지난 7월31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지난 6월중 개인소비지수가 전월비 변동이 없었다고 발표
 - 전문가들은 0.1% 상승을 예상한바 있음
 - 또한 지난 5월중 개인소비지수는 보합에서 0.1% 하락으로 수정
- 부문 별로는 자동차를 포함한 내구재 지출이 전달과 동일했으며 휘발유 등 비(非)내구재 지출이 0.4% 감소, 서비스 지출을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남
- 동 기간 소득은 0.5% 증가하며 전망치 0.4%를 상회
 - 소득 증가율은 상승, 소비 증가율은 하락하면서 저축률은 4%에서 연중 최고치인 4.4%로 상승
 - 아울러 세금 정산후 가처분 소득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 0.3%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

2) 5월중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하락폭 감소

- 지난 7월31일(현지시간)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와 케이스실러는 지난 5월중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가 전년동월비 0.7% 하락했다고 발표
 - 이는 지난 4월중 하락폭 1.8%보다 줄어든 낙폭으로, 2010년 9월 이후 가장 작은 하락 폭
 - 전월대비 계절조정치로는 0.9% 상승하며 전문가 예상 0.5% 보다 큰 폭으로 상승,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상승폭은 2.2%를 기록
- 한편 20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집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며 피닉스가 가장 높은 12%의 상승세를 기록, 반면 애틀랜타는 15%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임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유로존 실업률 사상최고 경신

- 지난 7월31일(현지시간) 유럽연합(EU) 통계청인 유로스탯은 지난 6월 유로존의 실업률이 전문가 예상에 부합하는 11.2%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EU 통계청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95년 후 가장 높은 수준
- 지난 6월중 유로존 실업인구는 전월비 12만3천명 증가한 1,780만 명으로 집계
 - 이중 스페인의 실업률이 24.8%로 가장 높았고, 포르투갈과 아일랜드가 각각 15.4%, 14.8%를 기록
- 이에 따라 최근 유럽 정상들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(ECB) 총재는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 의지를 거듭 밝힌바 있음
 - 재정위기가 만성적인 경기둔화로 이어지며 실업률 상승 등 유럽 경제를 더 깊은 악순환으로 밀어 넣고 있는 실정에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음

2) 리보금리 조작 은행원들, 최대 징역 10년형 예상

- 지난 7월30일(현지시간)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리보(런던 은행 간 금리) 조작에 가담한 은행원들이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
 - 영국 중대범죄수사청(SFO)의 책임자 데이비드 그린은 현행 규제를 리보 스캔들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은행원들이 금리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
- 이들 은행원들에게 부과될 형은 SFO가 리보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3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미국,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예비 부과

- 지난 7월30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제품에 대해 최고 82%의 예비 반덤핑(AD) 관세를 부과했다고 발표
 - 상무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한국산 세탁기에 매긴 관세는 대우전자 82.41%, LG전자 12.15%, 삼성전자 9.62%이고 기타 한국산 회사 제품은 11.36%
 - 또한 멕시코에서 생산된 삼성전자 제품은 72.41%가 매겨짐
 - 이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지난해 말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
- 아울러 상무부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월풀 제품에도 72.41%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
 - 월풀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사 제품을 미국 내 오하이오주 클라이드 지역에서 생산한 세탁기와 비교해 72.41%나 싸게 팔고 있기 때문
 - 하지만 월풀은 멕시코에서 제조한 세탁기를 더는 들여오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공장 설비를 확충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거의 100%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
- 한편 이들 업체는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 세관 당국에 이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(cash deposit)을 맡겨놔야 하며, 이는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
- 상무부는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금년 12월 내릴 방침이고, 미국 산업 피해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(ITC)의 판정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음

2) 삼성-애플간 미국내 특허소송 본안 심리 시작

- 지난 7월30일(현지시간)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와 관련한 본안 소송 첫 심리가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됨
 - 삼성전자는 모두 변론에서 애플이 세상을 떠난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
 - 애플은 삼성전자가 모든 변론에서 아이폰이 소니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
- NBC뉴스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글로벌 모바일시장의 판세가 바뀔 수 있다며 만약 삼성이 패소할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지적
- 또한 미 스탠퍼드 법대 마크 램리 교수는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애플의 보상 요구가 아니라 삼성의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여부라고 분석
 - 램리 교수는 만약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이 갈 것이라며 반대로 삼성이 승소한다면 애플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분석
- 한편 법원은 예비 배심원단 74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한 여러 질문을 거쳐 남자 7명, 여자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최종 결정, 향후 4주일간 열리는 공판을 통해 양측 주장을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됨